§ 교회목표 §
1. 천국시민양성
2. 만민에게 전도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 2017년 표어 §
다시 거룩한 교회로!
(롬1:17 레19:2)
†행 동 지 침†
1. 말씀과 비전으로 하나되는 교회
2.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 헌신하는 교회
3. 기도와 전도의 사명을 다하여 부흥하는 교회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www.seoulchurch.or.kr

소선지서 강해 - 나훔

니느웨에 대한 경고

(나훔 1:1~15)

원로목사 이 종 윤

용사 니므롯에 의해 세워진 도시 국가 니느웨는 창세기에도 나와 있는 세속도시의 상징입니다. 바벨론이 하나님과 대항하여 싸우는 악한 도시의 대명사라면 니느웨는 인간끼리 싸우는 악한 도시의 대명사입니다. 니느웨는 폭력적이었고 자기의 힘을 자랑하며 이웃과 형제를 괴롭히는 국가였습니다.

니느웨는 B.C. 2200년에 만들어진 함무라비법전에도 나와 있을 만큼 오래된 도시로 여러 세대에 걸쳐 거대한 성을 건축하고 이스라엘을 침략하며 괴롭혔습니다. 니느웨는 잠시 역사상에 감추어져 있다가 B.C. 1900년 경에 다시 나타나고 마침내 B.C. 800년경에 확실하게 역사 위에 떠올라 이스라엘을 침략하면서 큰 도시로 역사속에 부각되었습니다. 그 후 살만에셀 3세는 니느웨를 발판으로 북이스라엘을 점령했습니다.(B.C. 850 - B.C. 824)

이런 니느웨가 멸망한 것에 대해 역사가들은 먼저 그들의 내적 부패를 들었고 한편으론 신흥국가인 바벨론에 의해 무너졌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나훔서에서는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 니느웨가 멸망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분명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끝없이 용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죄를 범한 이들에게 반드시 죄값을 물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심판을 연기하시면서 우리가 회개하여 멸망에 이르지 않게 하기 위하여 끝까지 참고 계십니다. 그러나 심판날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이것을 예언한 사람이 바로 선지자 나훔입니다.

나훔은 위로 혹은 자비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니느웨에 대한 예언을 할 때는 전혀 그 뜻과는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그의 입에서 불같이 토해냅니다.

나훔 선지자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보아 이스라엘을 언제까지나 원수에게 버려두지 않고 반드시 구원하여 주실 것이라고 예언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1. 심판의 이유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2절).

하나님의 보복은 인간의 잘못된 행위에 대한 보상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그대로 넘기시지 않습니다. 질투는 사랑의 또다른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질투하실 만큼 사랑하시어 마침내 대적하고 거슬리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고 보복하십니다.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신32:35).

하나님은 또한 그의 백성에 선하심으로 말미암아 니느웨를 심판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택한 백성들을 향한 박해를 끝내시려고 마침내 니느웨를 멸망시키셨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7절).

이 말씀은 마틴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당시 가장 위로를 받은 말씀으로 하나님이 다른 백성을 심판하심으로 유대백성들이 위로를 받게 될 것을 일곱번이나 반복합니다.

2. 심판의 방법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8절).

범람하는 물은 외국의 군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앗시리아는 범람하는 물처럼 밀려오는 페르시아군대와 바벨론군대에 의해서 진멸 당하고 말 것이라는 예언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위로를 받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9절).

유대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싸우실 것이고 온전히 멸하여 이길 것이라는 위로의 음성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자들을 단번에 끝내십니다(10절). 니느웨는 마른 지푸라기같이 불타 없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대적자들을 물로 쓸어버리고 불로 태워서 흔적도 없이 처치하시어 그 이름조차도 기억되지 않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결국 니느웨는 역사의 암흑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나 여호와가 네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네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네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네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네가 쓸모없게 되었음이라"(14절).

이름이 다시 전파되지 않는다는 말은 후계자가 없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이단의 특징입니다. 지금 니느웨를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위에 있도다 유다야 네 절기를 지키고 네 서원을 갚을 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네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15절).

불신자에 대한 심판이 확실하다는 것은 자기 백성에 대한 위로가 확실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대적하는 사람의 입을 봉하고 끝을 보게 하여 성도들로 하여금 아름다운 소식을 듣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역사의 주권을 가지시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돌리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2018년 1월 1일 0시 본당

2018년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송구영신예배가 1월 1일 0시 본당에서 시작된다. 오후 11시 30분에 모든 성도들이 지난 과오를 회개하는 기도와 새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는 가운데 소등이 되었다가 0시 정각, 강대상에 촛불이 켜지면서 이종윤 원로목사의 인도로 시작된다. 송구영신예배에 참석하는 성도들은 오후 11시 30분 소등이 되기 전 기도로 준비하기 바란다.

항존직 은퇴식 / 특별제직회

항존직 은퇴식 : 오늘 찬양예배 시
특별제직회 : 오늘 오후 3시 30분, 본당

주님앞에서 평생을 순종하며 기도와 섬김의 도리를 다하다가 총회헌법과 서울교회 규정에 정한대로 정년이 되어 은퇴하는 집사, 권사들의 은퇴식이 12월 31일(주) 찬양예배시간에 열린다.

또한 오후 3시 30분 본당에서 예·결산을 다루는 특별제직회로 모인다.

교회는 26년 간 매 년 마지막 주에 특별제직회를 통해 교회의 일년 결산과 예산을 공개하여 왔다. 교회의 일년 예결산을 다루는 중요한 자리니 제직들은 모두 참석 바란다.

- 항존직 은퇴자 명단 -

* 집사: 이기일 임종태 최홍열(3명)
* 권사: 강영자 김예환 선순례 여영숙 유명석 이영희5 장낙희 채덕희 최근자 최원자 황재연(11명)

장한 어머니상 시상

오늘 찬양예배시간에

우리교회는 국가적으로 인구감소에 대한 대안책으로 장한 어머니상을 시상하고 있다. 금년에도 부모가 교회 등록한 지 1년 이상된 성도로 자녀를 셋 이상 낳은 가정의 어머니(출산일: 2016년 12월 12일부터 - 2017년 12월 17일까지)를 장한 어머니로 선정하고 셋째 또는 넷째 아이의 장학금 통장을 오늘 찬양예배시간에 시상한다. 장한 어머니상 수상자는 아래와 같다.

또한 믿음의 어머니로서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을 가르치며, 2017년 한 해 동안 자녀들이 교회학교 예배에 개근하도록 양육하였기에 교회는 그 노고를 치하하며 함께 시상한다.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 교 구 - 장한 어머니상 (다자녀)**

- 5교구 어머니 : 하영인 집사
  아기 : 이린하(셋째-딸) 2017. 11. 8

*** 교육부서 - 장한 어머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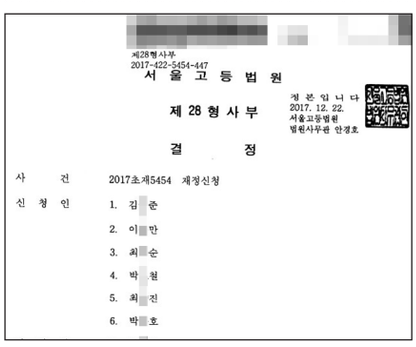
개근자 : 42명 / 어머니 : 26명

1. 두 자녀 개근 (16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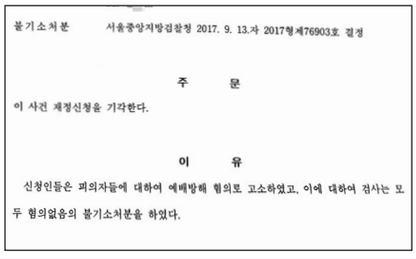
이현정 (김은송/김은초) 전미경 (김재용/김재령) 노애리 (장해라/장해윤) 한주희 (김서연/김연우) 신아령 (김종혁/김종현) 남재은 (임하람/임하율) 이주영 (이시연/이시우) 이수정 (장유선/장유정) 송명원 (정은지/정은채) 이진희 (조연우/조건우) 정신아 (김하민/김하준) 구진영 (한세아/한세희) 손영희 (한예준/한예승) 유정민 (서예준/서예성) 김연화 (감동헌/감정헌) 권진순 (유동연/유동일)

2. 한 자녀 개근(10명)

임규연 (김선후) 하혜심 (김재윤) 박지혜 (정혜윤) 안재희 (윤서진) 오선혜 (정우성) 강남희 (장하늘) 이윤경 (최의연) 정을순 (김태수) 이민정 (김지석) 정윤희 (공지혜)



제28형사부
2017-422-5454-447
서 울 고 등 법 원
제 28 형 사 부
정 본 입 니 다
2017. 12. 22.
서울고등법원
법원사무관 안경호
결 정
사 건 2017초재5454 재정신청
신 청 인 1. 김 준
2. 이 만
3. 최 순
4. 박 철
5. 최 진
6. 박 호



불기소처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7. 9. 13.자 2017형제76903호 결정
주 문
이 사건 재정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들은 피의자들에 대하여 예배방해 혐의로 고소하였고, 이에 대하여 검사는 모두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1.15 예배방해 없었다

박노철 목사 측이
재정 신청한 『1.15 예배 방해』 - 기각

박노철 목사 외 5인이 2017년 1월 15일(주)에 예배방해를 받았다면서 21명을 대상으로 고소를 하였고 지난 9월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무혐의로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다시 박노철 목사측은 서울고등법원에 재정 신청을 하였으나 12월 21일(목)에 기각되었다.

*** 박노철 목사 측 1.15 불법감금 주장**

2017. 4.26 : 서울중앙지방검찰청-혐의 없음 불기소처분
2017. 11.1 : 서울고등법원 제 24 형사부 - 기각

*** 박노철 목사 측 1.15 예배방해 주장**

2017. 9.13 : 서울중앙지방법원-혐의 없음 불기소처분
2017. 12.21 : 서울고등법원 제 28형사부 - 기각

교회회복을 위한 기금 기부자 명단

권정현/이옥수 유명석 이준호/이은희 김정두 이홍숙 유동훈/윤지연 샬롬권사회 무명 (다음 주 계속)

*** 기부금 입금 계좌 :**
신한 110-481-143925 노문환(서울교회장로회)

새해 바뀌는 것들

*** 순결서약식**

부활주일 찬양예배 시간에 하던 것을 신년주일(1월 7일) 찬양예배 시간에 한다.

- 순결서약식 대상자
  최윤경 감동헌 송은희 감정헌 김장겸 유동일 송민주 장하늘

*** 주일예배 경배찬송**

5장에서 2장으로 변경한다.

신앙강좌반 개강

1. 7.(주) 12시 40분, 웨민홀
강사 : 김의창 목사

교회의 혼란으로 중단되었던 신앙강좌반이 내년 1월 7일(주)에 개강한다.

신앙강좌반(부장 : 서은석 집사)은 우리교회 협동목사인 김의창 목사(횃불트리니티 초빙교수)를 강사로 모시고 오후 12시 40분 웨스트민스터 홀에서 갖는다. 모든 성도들의 신앙 성장을 위해 개설되었던 신앙강좌반이 1년동안 중단 사태까지 있었으나 다시금 시작하는 이때에 많은 성도들의 관심과 참여 바란다.

중·고등부 지도교역자 청빙

우리교회는 중·고등부 지도교역자를 청빙키로 하였다. 이번에 청빙하는 지도 교역자는 최승원 전도사이다. 약력은 다음과 같다.

최승원 전도사

- 1978년 9월 28일 생
-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졸업
- 장신대신대원 졸업
- 주안장로교회, 나섬교회, 높은뜻 씨앗이 되어 교회, 동안교회 전도사 역임

다락방 리더훈련 종강

하반기 다락방 리더훈련을 12월 20일(수)에 종강하였다. 이에 따라 다락방 모임도 방학에 들어갔다. 다락방 리더훈련 개강은 2018년 2월 7일(수)에 한다.

사무국장 유태서 집사 특별휴가

당회는 사무국장 유태서 집사에게 2017년 12월 28일부터 2018년 1월 27일까지 특별휴가를 허락하였다.

지금까지 지내 온것 주의 크신 은혜라

스데반회 섬김을 마치고

상처들이 속히 다 회복되도록

송인수 집사
(스데반회 회장)

올 한해 짧은 시간이었지만 참으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일일이 다 열거할 수는 없지만 그 중 한가지는 박노철 목사가 사퇴하겠다고 발표를 한 사건이었습니다.

교회 5층 통로에서 구두로 대신 발표하자 그 자리에 있던 많은 성도들이 그간의 행실로 미루어 보아 믿을수 없다며 자필 각서를 요구하여 경찰 입회하에 자필로 각서까지 쓰고 박노철 목사 본인이 직접 발표까지 했지만 지난 몇 년간 그래 왔듯이 또 다시 거짓으로 말을 뒤엎고 오히려 많은 성도들을 고소 고발하였습니다. 지금도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 갖은 몹쓸짓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에 많은 성도님들이 망설임 없이 교회 지킴이로 나서 주셨고 교회의 버팀목으로 온 힘을 다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한 해를 함께 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감사할 따름입니다. 부족한 저와 1년동안 기도와 사랑으로 함께 해주신 스데반회원과 성도님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나눌 기도제목은 지난 수년간 거짓 목회자로 인해 갖게 된 많은 상처들이 속히 회복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가까스로 정상화된 예배를 통해 조금은 회복되었지만 마음속 깊은 상처들은 쉬이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크고 작은 모든 상처들이 속히 다 회복되고, 2018년에는 서울교회가 주님의 교회로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지길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한 마음·한 영으로 화합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샬롬권사회 섬김을 마치고

소명으로 섬긴 한 해

박경희 권사
(샬롬권사회 회장)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비몽사몽에 빠져 있던 우리서울교회를 하나님은 지극히 사랑하시어 흔들어 깨웠고 회초리를 들었습니다. 세속에 물들지 말고 거룩하고 정결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제 길로만 치닫던 우리교회의 선두에, 원치 않는 사이비 목사가 선장에 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충성된 다수의 장로님들을 하나 되게 하시어 교회 지키기에 뜻을 모으게 하시었으니 늦은 비와 이른 비로 당신의 백성을 거느리시던 하나님이 때를 따라 깨우고 회초리로 다스리시는 그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울부짖으며 힘겨웠던 지난 2년 여의 환난은 쭉정이와 알곡을 가려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최후 심판을 앞당겨 보는 것 같았습니다. 거짓영의 그림자까지도 일곱 길로 달아나게 하옵소서.

허물투성이요 부족하기 이를 데 없는 여종을 이 환난의 때에 샬롬권사회를 섬기라고 맡겨 주셨으니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 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요16:33)" 라고 하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연약한 저에게 힘과 용기를 부어주시어 방황하는 뭇 양 무리들을 불러 모아 구원의 방주를 수축하라는 명령으로 받아, 저에게 순종의 마음을 주시고 힘껏 맡은 자의 충성을 다 할 것을 결단하게 인도 해 주시기를 소원 했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니 "무익한 종이라"라고 고백 할 것 밖에 없습니다. 한마음 한 뜻으로 하나가 된 회원 40여명은 이전보다 더욱 뜨거운 열정으로 교회회복을 위한 기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았고 철저한 절제로 년 말의 회원선물을 사양하고 교회회복 기금모금(2백 십만 원)을 실천하여 영광 돌려 드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쓰임 받은 회원 여러분들의 충성된 열매임을 고백합니다. 두 손 모아 바라기는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빠른 교회회복을 주시고 한국 교회를 향도하므로 기뻐 받으시는 우리 서울교회 되기를 간구 드립니다.

제 1 권사회 섬김을 마치고

믿음의 권속들께 감사드립니다

장호림 권사
(제1 권사회 회장)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기쁨이신 주 예수 탄생하심으로 우리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셨습니다.

세삼 기쁨을 나누면서 한편으로 한 해를 돌이켜 보면 다시 돌아가고 싶을 때도 있지만 기억조차 하기 싫을 때가 더 많지 않나 싶습니다. 모든 일에 때가 있기에 지금 고통과 고난으로 버거운 순간마저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됨을 고백합니다. 또한 우리 믿음 가운데 보내신 아빠 아버지에 대한 믿음의 산증인으로 남고 싶다는 고백을 합니다.

2017년은 정말 서울교회 성도는 누구를 막론하고 다사다난한 한 해를 보냈을 것입니다. 그릇되고 악한 목회자로 인해 불의에 맞서서 순간 교회를 지키며 힘들고 주저 앉고 싶은 고통의 시간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절대로 없는것은 정녕 나혼자만의 생각은 아닐 것입니다.

교회는 고난과 역경의 시간들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진정 개혁된 교회를 다시금 세우는데 밑거름이 되는 2017년었습니다. 이 시간에 제1권사회장직을 맡아 교회에 봉사하고 헌신한 것에 주님께 온전히 감사함뿐입니다.

우리 모든 믿는 성도들은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아야할 불의와 악에 대항하여 슬기롭게 대처하고 이겨냈기에 조금씩 예배당의 빈자리가 채워져가고, 출입조차도 못했던 주차장은 힘쓰며 애쓰는 집사님들의 헌신으로 빈 공간이 없이 차고 넘치고 있음에 감사, 감사만 할 뿐입니다.

서울교회의 안정화 되가는 모습에서 교회가 교회답게, 예배가 예배답게 되어가며 천천히 하나님의 때를 향해 일어서는, 그리고 회복의 고지를 향해 가는거라 믿어 의심치않으면서 영육간에 입은 상처는 예수님의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특히 서바협, 사서함, 권사회 권속들께서는 서울교회를 지키기위해 희생을 마다하지 않았기에 뜨거운 믿음안에 사랑을 전합니다. 어느 곳에 있었다가도 모이고 힘쓸 때마다 함께 하고 지금 이순간 송구영신의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도와주신 제1권사회 모든 권사님들께 다시한번 고마움의 인사 드립니다.

교회가 정상화가되어 새로이 피택되는 새로운 권사가 임직되는 제 1권사회의 활동을 기다려봅니다. 항상 강건하시길 바라며, 우리 모두 교회를 위해 쉼없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정년퇴직을 하면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이영주 권사 (5교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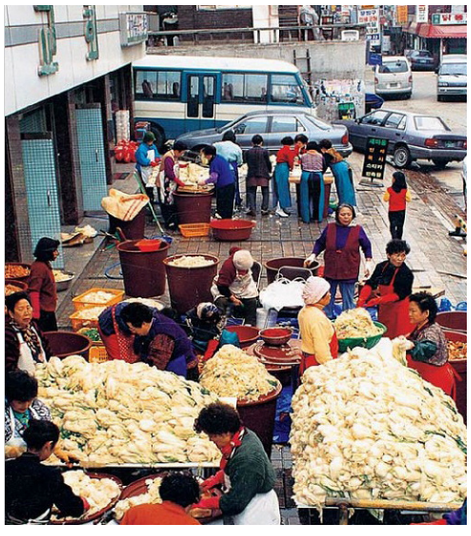
서울교회를 섬기다 보니 어느새 24년이란 시간이 흘러 올해로 은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힘들어 지칠 때 힘 되어 주시고 낙심될 때 용기 주시고 돕는 자 주셔서 일마다 때마다 일이 순적(順適)하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적은 일이지만 충성할 맘 주시고 다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 할 수 있게 건강 주시고 지혜 주셔서 감당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부족한 그릇이지만 주의 전에서 일 할 수 있었음을 감사드립니다.

긴 시간 속에 목회자 세미나를 위해 수고해주신 노 권사님들, 이미 고인이 되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그 수고의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천막으로 된 아코디언식당에서 김밥을 만드시다가 혹여 비라고 오면 밥을 들고 유아부실로 옮겨가며 준비해 주셨던 목회자 세미나! 지금은 김치를 구입해서 쓸 수 있지만, 그때는 일일이 김치를 담기 위해 마늘, 고추 다듬어 방앗간까지 가서 빻아오곤 했습니다. 교회 김장은 권사님들의 도움의 손길이 있어야만 모든 것이 가능했습니다. 지하주차장에서 배추를 다듬어 일일이 옥상까지 올려주시던 집사님들의 도우심의 손길도 잊지 못합니다. 그뿐인가요? 각국의 교회지도자들을 모셔와 각종 교육과 세미나를 했던 김치세미나는 국제적인 행사여서 그 어느 행사보다도 권사님들의 숨겨진 솜씨를 필요로 했습니다. 한 사람의 선교사를 보내는 것보다 각 나라에 있는 교역자를 모셔서 교육하여 보내는 것이 더 효율적인 선교라고 하시는 이종윤 목사님의 말씀대로 선교하는 심정으로 김치세미나 식사를 준비하고 했습니다.

겨울에는 장갑을 끼고 식사를 해야 할 정도로 황소바람이 들어오는 반포동 옥상식당, 냉장고도 남이 쓰던 것 가져다 사용했고, 세탁기도 날씨가 추우면 얼어 터졌습니다. 여름에는 식탁을 덮어 놓은 천막에 비라도 오면 연못이 되기도 했지만 더워도 추워도 주일 준비해 주시기 위해 달려오시던 집사님 권사님들이 한 분, 한 분 주마등처럼 스쳐갑니다.

교회물건 아껴 쓰는 것이 헌금하는 것과 같다고 하시고 교회 청소할 때 손수 직원들과 왁스 청소도 하셨던 원로 장로님의 모습이며 바자 때마다 섬기시던 분들의 모습을 감사한 마음으로 추억해 봅니다. 주기도문과 사도신경 새 번역을 위해 수 년 간 조찬 지원을 해주신 집사님 권사님, 새로운 가정의 출발에 도움이 되어주신 예전부 식구들도 감사합니다.

각자 맡은 일이 있음에도 시장 보는 일, 무거운 짐 옮겨 주신 우리 직원들 감사합니다. 이 긴 시간 동안 하나님 은혜로 걷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는 내 일하라 나는 네 일 해줄게 말씀하심에 저는 순종 했을 뿐인데 모든 일을 인도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채워 주심을 고백하며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교회의 빠른 회복을 기도하며 이전보다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교회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의 하나님

가고 오는 세월

오정수 은퇴장로 (9교구)

봄 여름 가을을 싣고
달려온 겨울
한해의 끝자락

앙상한 나뭇가지 사이로
비켜 가는 바람과 세월
물보라처럼 미련과
아쉬움의 후회를 남기고

추위와 하얀 눈은
갈 길을 더디게 하건만
가는 세월 오는 세월은
거침없이 달려간다

긴 시간 이어진 한 해의 걸음
쉼 없이 달려온 삼백육십오일
종착역에 이르니
몸도 마음도 힘든 한해였다

새롭게 갈아타야 할
2018년도의 바톤이 기다리기에
이제는 마음도 생각도
새롭게 준비하리라 다짐해 보지만

지나온 시간의 무게와
맡겨주신 사명이
먼저 나의 마음을 무겁게 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교회의 주인은 예수그리스도!

핏값으로 세운 주님의 몸 된 서울교회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

감사와 찬송으로
몸도 마음도 아팠던
2017년도를 보내고

서울교회 회복을 기대하며
희망의 2018년 새해를 맞이하자

2017 성탄축하 행사들

기쁘다 구주 오셨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⑫

⑬

⑭

⑮

⑯

①~④ : 12월 25일(월) 성탄축하예배 2층, 3층
⑤~⑩ : 12월 24일(주) 성탄축하 찬양 : 유아유치부, 유. 초등부 사랑부 학생들이 오랜시간 준비한 찬양으로 아기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찬양드렸다.
⑪ 산타클로스 할아버지의 선물증정
⑫ ⑮ 12월 17일(주) 임마누엘 찬양대와 아멘관현악단의 성탄축하 특별 찬양 『외치세! 기쁜소식!』
⑬ ⑭ ⑯ 청년 1, 2부의 성탄절 새벽송 -이종윤 원로목사님댁, 오정수 은퇴장로님댁, 류장렬 은퇴집사님댁

사진 : 김애리 집사, 이준태 집사, 청년부

농어촌 100교회운동, 비전2020운동 한가정 한선교사 운동 계속 후원

그 동안 중단되었던 농어촌 100교회 운동(1구좌 10만원, 1/2구좌 5만원) 후원과 비전2020운동(1구좌 1만원) 후원을 2018년부터 다시 실시하며, 한가정 한선교사 운동을 계속 후원한다. 성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

- 2017년도 마지막 화요기도회를 마치고 -
교회가 어려운 때에 매주 화요일, 기도의 어머니로 교회를 위해, 국가를 위해, 수험생을 위해, 군복무자를 위해 기도해 주심 감사드립니다.

전 성도 성경 읽기

1년 1독 코스, 2독 코스 선택하여 참여

우리 교회는 26년 동안 성경통독대회, 서울성경대학, 주간성경공부, 성경통독자 수상, 성경암송대회, 성경필사 등 성경을 읽고 외우기를 힘써 왔었다. 그러나 교회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많은 일들이 중단되었다.

이에 2018년은 말씀안에서 새롭게 재건하고 말씀으로 영적 무장을 하기로 결정하고 2018년 1월 1일부터 전교인 성경읽기를 실시한다. 매주 순례자에 게재되는 성경읽기표에 따라 1년 1독 또는 2독을 선택하여 할 수 있다. 보통 성경읽기표는 장으로 나누어서 매일 읽는 양이 불규칙하지만, 1년 1독 일정표는 1일 평균 86절을 읽도록 하여, 매일 비슷한 시간이 소요되도록 맞추어 배분하였으며, 1년 2독 일정표는 상반기 평균 173절씩, 하반기 평균 170절씩 배분하였다.

모든 성도들이 2018년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독하는 일에 동참하기 바란다.

일 자	요 일	1년 1독	확인	1년 2독	확인
1월 1일	월	창세기 1~3		창세기 1~6	
1월 2일	화	창세기 4~6		창세기 7~13	
1월 3일	수	창세기 7~9		창세기 14~19	
1월 4일	목	창세기 10~12		창세기 20~24	
1월 5일	금	창세기 13~17		창세기 25~30	
1월 6일	토	창세기 18~20		창세기 31~34	
1월 7일	주일	창세기 21~23		창세기 35~39	

동 정

■ 이종윤 원로목사는 1일(월) 서울교회 당회원들의 예방을 받는다. 2일(화) 신학자들의 예방을 받는다. 3일(수) 자유민주국민연합 신년하례회를 갖고 4일(목) 한국기독교학교연맹 55회정기총회 및 회원(총장,교장,원장)연수회 주제강연을 한다. 6일(토) 사랑의쌀운동과 국제울란바타르대 이사회에서 각각 설교한다.

■ 수상 : 오영숙 권사 『민주평화통일자문회 공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장 대통령 표창

■ 금주의 식사 : 12교구 유명종 집사 이형희권사 가정
(자녀 결혼 감사하며)

■ 간식 및 찬조 : 1년 동안 찬조해 주심 감사합니다.
이옥수 이홍숙 김동진/박진주 이형희 박종숙 김해영 박길자 오윤걸 주경자 이영희 김은순 송민정 권성자 최영란 김예환 안미경 김정제 김명숙 조현정/이관모 송민정 김명화 박혜옥/박미정 김명화 이정연 정미연 소망부 박진주 김혜중 이순영 김예환 이용자 윤봉준 김일순 신금전 김명화 최금숙 박경희 최지욱/이정현 유명석 문승순 김명화 최용준/이윤경 호산나대학 학부모 백정숙 최영경 김윤지 박민숙 김명화 이영희 최금숙 이관규/이순영 김정열

서울 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고난 중에도 2017년 한 해 동안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새해에는 더욱 하나님만 의지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2. 송구영신예배에 모든 성도들이 참석하여 말씀과 기도로 새해를 맞이하게 하옵소서.

3. 은퇴하시는 항존직 직분자들과 함께 하시어 그 분들의 섬김과 기도의 씨앗들이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게 하옵소서.

교회 주차장 사용 안내

수요예배, 찬양예배 후 신속한 출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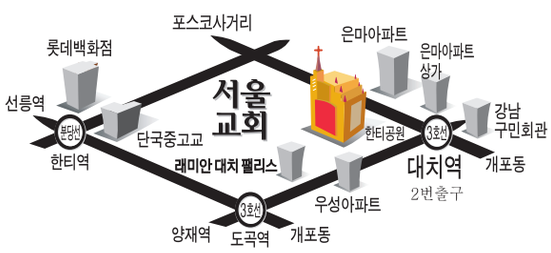
수요예배와 주일예배 시 지하주차장을 개방하여 이용하고 있는 가운데 차량 위원들의 지시를 따라서 질서 있게 주차하고 있다.

다만 수요예배와 주일 찬양예배가 끝난 후 주차장 정리를 빨리 할 수 있도록 자동차를 먼저 지상으로 옮겨주기 바란다.

■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장 소
주일예배	Ⅰ부 예 배	오전 9시	본당
	Ⅱ 부 예 배	오전 11시 20분	
	Ⅲ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11시20분	8층(802호)
수요예배	Ⅱ 부 예 배	오후 7시	웨스트민스터 홀
새 벽 예 배		오전 5시 30분(매일)	인터넷 영상

■ 교회 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